



특집

성결의 은혜를 간직하는 삶

- 36. 성결교회가 주장하는 성결이란 무엇인가? II / 조종남
- 41. 어떻게 성결의 은혜를 받는가? II / 신성철
- 47. 질만하니까 지라하시지 / 편집부
- 51. 성결의 은혜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까? / 권성만

나를 걸 단케 한 성경 말씀 한 구절

- 37.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 최현호

말씀과 생활신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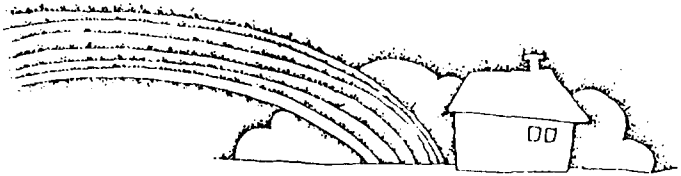
- 39. 하나님이 그 때 그 말씀 전도 / 이명직
- 43. 구약의 성서속으로 야곱의 경배 / 이병렬
- 49. 편안도 공위한 주기도문강해 사유하시는 하나님 / 김상현
- 53. 산속복음 깨끗케 하시는 피 II / 나까다주지
- 59. 성결교회의 미래유망에서 일제시대 한국성결교회의 경제적 사립 / 박명수

월천가족실

- 69. 마포신교단교회 있을 수 없는 마포토신교 / 박종태
- 75. 어린 이민 2세 문화로 옮겨가는 미주교회 / 정승일
- 87. 이소식 지소식 · 기타 / 편집실

122. 매일 말씀묵상/말씀의 빛 · 성결한 삶/

14



현 장

- 21. 사랑의손을여과기 서울대 합격은 우리 쌍동이 형제에게 준 값비싼 선물/김주영
 - 26. 드림과 21세기 속의 성결교회를 향한 나의 소원/임지혜
 - 32. 장애인과 일반인들 죽음으로 얻은 생명/백종욱
 - 98. 팀방기 교회개혁에 모범을 제시한 에덴교회/서정무
 - 98. 동행하는 믿음 인도하심, 함께 하심 그것만이 감격되었으니/백종욱
 - 112. 건강사랑에 병든 환경, 결국 내 돈을 요구한다/김주영
 - 100. 성결인이셨군요/서영욱
- '애성'으로 일하는 노동부 차관 강봉관집사
 천사특수교육원장 김정희 집사

문화와 신앙

- 11. 권두시 다시 살아난 이의 노래/박지혜
- 93. 산생칼럼 빈 무덤을 찾아가는 무리/백수복
- 94. 로댕나무그늘 주점 너머에는 생명이/윤명성

잊을수 없는 만남

- 106. 나눔변화시간신앙인사건 뚜렷한 해결책이 없을 때가 기도할 때/백종욱
- 108. 내신앙에영향을준사람 할아버지 목사님/장명숙
- 110. 강명길게임을이한권의책 맹의순의 짧은 인생 이야기/유희상




봄바다 / 최영이 (서양화가 · 부산교회 집사)

겨우내 우리네 예민한 양심은 큰 파도가 소리칠 때마다 그 소리가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겨져 스스로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 요란하던 겨울바다가 이제는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나 봄 바다를 봄 바다대로 그 맑고 투명한 바닷물에 우리의 허물이 비취지게 하여 부끄럼을 갖게 합니다.

전 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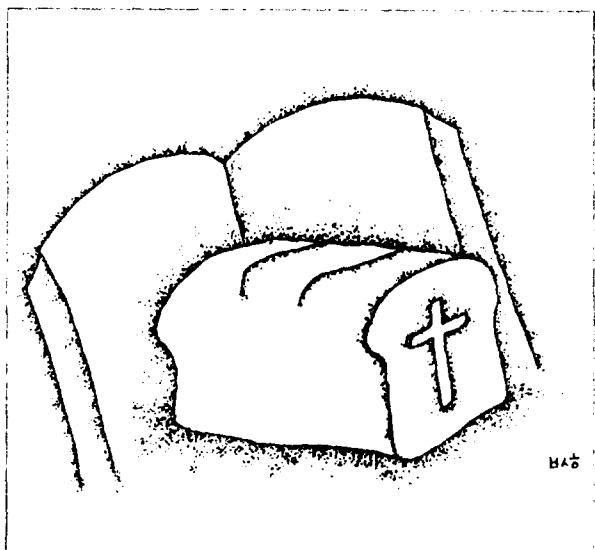
이명직 목사(1890. 12. 2~1973. 3. 30)는 한국성결교회 시부로 존경받으시는 분입니다. 목사님은 성서학자로 신학자로 교육자로 설교자로 한국교회사에 큰 영향을 끼치셨다. 본 란을 통하여 그분의 그때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들어본다.

 기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 7-15)

전도란 무엇인가?

전도라 함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 같은 전도가 아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바 전도라 함은 전도의 본 뜻을 지미란 지 이미 오래인 것같은 생각이 된다. 혹은 전도강연이라는 간판을 내붙인다. 회당에 들어가서 들어보면 전도라는 주제와는 거리가 멀고 내용은 요령분류이다. 혹은 정치 강연과도 같고, 또는 사상 토론처럼 전도가 아닌 자기의 신전만을 하고 마는 일이 많다. 그러나 전도는 문자 그대로 도

(道)를 전하는 것이다. 전도는 도(道)를 잃은 사람에게 도(道)를 가르치는 것이며, 도(道)를 멸망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다. 도(道)를 바로 아는 사람이라야 도(道)를 바로 전할 것이다. 도(道)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곧 그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참 전도이다. 비록 웅변적으로 말을 하였다 하여도 그 말한 바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는 내용이라면 전도가 아니다. 또 전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십자가를 빼놓은 전도는 아무리 그 말이 능력이 있고, 고상하고, 지혜롭다 하여도 그것은 가치 없는 전도이며 생명 없는 전도이다.



에 실탄이 있다면 반드시 잠을 짓이나, 만일 실탄이 없다면 총 소리만 요란할 뿐 잠힌 것은 아무 것도 없을 것이 분명하다. 그런즉 총이란 요란한 소리 내는 것이 사명이 아니다. 그 목적물을 맞추지 못하면 총으로써의 그 사명을 다 할 수 없다고 할 수 없다.

또 참된 전도는 최악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가르치며, 전하는 것이다. 참된 전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 없이 솔직하게 그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길 잃은 사람에게 생명의 길을 밝히 보여 주며 전하는 것이다.

전도와 생명

도(道)에는 무한한 생명이 있다. 그러므로 전도는 생명을 전하는 것이며, 또한 생명이 있는 곳에는 전도가 있게 된다. 전도는 생명을 소개하는 것이다. 마치 사냥하는 포수가 달아나는 짐승을 표적하고 총을 쏘았을 때

우리의 전도도 그러하다. 전도는 생명의 발현(드러나 보임)이다. 그러므로 참 생명이 있는 교회는 살아 움직이며, 전도하는 교회는 번영할 것이다. 오늘날 교회에서 가장 부끄러운 것은 전도하지 않는 것이다.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따라서 성장하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 한국에 36개의 성당이 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없고, 지랄한 것이 못된다. 36만 이외에 오히려 2,300만이라는 최악 중에 있는 동포를 보아야 할 것이다(본 설교는 1925년경에 행해진 것임-원집자 주). 어떤 교회에는 매 주일에 수백명 또는 천여 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와글와글거린다. 그러나 그것

전도라 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는 것이 전도이다. 십자가를 매놓은 전도는 아무리 그 말이 능력이 있고, 고상하고, 지혜롭다 하여도 그것은 가치 없는 전도이며 생명 없는 전도이다.

으로 만족할 것인가? 이제 천국이 된 줄로 알고 전도를 그만둘 것인가? 아니다 만일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는 타락일 것이다. 혹 20, 30만명 모이면 그것으로 매우 강한 줄로 알고 토요일과 수요일에 심방이나 하면 큰 일이나 한 듯이 생각하고 있거나 않은지? 만일 그렇다면 이는 죽은 교회라 아니 할 수 없고, 생명 잃은 교회라 아니 할 수 없다. 생명 있는 교회는 전도한다. 교회가 전도에 열성을 가질 때 축복을 받게 된다. 씨앗을 많이 뿌리면 많은 열매를 거두게 되는 것과 같다. 모든 교회가 에베소교회와 같이 피곤하도록 수고하여 전도한다면(계 2:2), 하나님의 공간에 거두어 드릴 것이 많을 것이다.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전도하는 것이 말세에 교회의 더욱 큰 사명이다. 생명의 특징은 전도이다.

전도는 교세를 확장함이 아니다

전도에는 여러가지 주의가 있다. 교세를 확장코자 함도 있고, 투기와

분쟁의 주의로 전도함도 있고, 다른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하여, 또는 저지하고자 함도 있고 많은 영혼을 사랑함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 바울 시대에도 전도하게 된 동기가 두가지가 있었는데, 즉 투기와 분쟁으로, 또는 선한 뜻으로 영혼을 사랑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다(빌 1:15). 우리의 전도는 순수하지 못한 육신적인 욕망으로 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은 희박하여지고, 교세 확장, 또는 교인 수 증가운동에만 급급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들이 표명상으로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 많다. 우리가 오늘에 있어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사이에 한국을 삼분 천하하여 각각 교회의 구역을 정한 것이라 하겠다. 이에 대하여 깊이 비평하고 싶지 않으나, 빠라기는 속히 교세를 의미하는 교회 구역을 깨뜨리고 손잡고 협력하여 참 전도 곧 교파와 교구를 초월한 생명의 전도가 있기를 원하는 바이다.

교회가 타락할수록 영혼에 대한 관심은 쇠락하여지고, 교세 확장, 또는 교인 수 증가운동에만 급급하게 된다. 이러한 운동들이 표면상으로는 주를 위하여 일하는 것 같으나, 내적으로 보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없는 일이 많다.

전도와 수단

수단도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하나 전도만은 수단이 필요하지 않다. 사람에게 생명을 수단으로 줄 수는 없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전도를 수단으로 하려다가 실패하는 일이 많다. 가령 교회에 지식 있는 사람, 재산 있는 사람이 들어온다면 수단적으로 세례를 주고 직임도 맡기는 일이 있으나 결국 실패로 돌아가는 일이 많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힘으로 되지 아니 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 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속 4 : 6) 하셨으니, 이것이 전도의 원칙이다. 주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행 1 : 8) 말씀하셨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전도에 다른 방법이나 수단을 강구하지 않고 오직 성령의 권능을 요구하였다면 벌써 성공하였을 것이다. 수단은 사람의 일이요,

성령을 보내심은 하나님의 일이다. 사람의 수단을 사용하여 전도에 성공한 실례가 없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실패

한 역사가 없다. 우리는 전도하기 위하여 어떤 방법을 사용하고 있지는 않는가? 또한 어떤 수단을 동원하고 있지는 않는가? 오늘날 성령의 권능을 잃어버린 교회에서는 전도의 방법을 인간의 수단으로 대응하는 일이 많은데, 이럴때 교회에 속화가 밀려난다.

속화가 교회에 수입

속화를 교회가 끌어들이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왔어 제 조상 한 금 방패를 잃어버리고 구원 방패를 잃어 신함과 같이,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는 영회로 사람의 눈을 이끌고 가며, 음악이나 가족으로 사람의 마음을 이끌고자 하며, 명사들을 강사로 하여 연으로 사람의 인격을 끌어들인다. 그 구차한 행동은 정으로 끌려다니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의 귀와 눈 뿐만 아니라 그 영혼까지 이끌어 낼 것인데, 인조적 수단이나 방법으로 그 힘을 다하여 눈이나 귀를 끌어들인다 해도 육체뿐이다. 어서한것. 이런

속화를 교회가 끌어드리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이 재조한 순금 방패를 잃어버리고 구리 방패로 대신함과 같이, 성령을 잃어버린 교회는 영화로 사람의 눈을 이끌고자 하며, 음악이나 가극으로 사람의 귀를 이끌고자 하며, 명사들을 청하여 강연으로 사람의 인기를 끌고자 하니, 그 구차한 행동은 참으로 가련하다.

수단과 방법으로 말미암아 교회에는 속화만 끌어 드릴뿐, 아무런 유익이 없다. 많은 교회가 이러한 세속적인 행동을 하면서도 전도라고 생각하나, 전도라고 이름을 붙이려거든 사단의 전도라고나 하라. 수단이 전도가 아니며,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이 전도가 아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 하라.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타내라. 생명의 길을 보여 주라. 눈을 즐겁게 말고 눈물을 흘리게 하라. 귀를 즐겁게 하는 대신 마음을 아프게 하여 회개케 하라. 수단 좋은 것이 일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 구원하는 것이 일 잘 하는 것이다.

전도와 부흥

우리는 일각이라도 안일을 탐하지 말고, 전격적으로 생명의 도, 십자가의 도를 전해야 한다. 이것이 부흥의 원동력이다. 우리는 기도도 하

려니와 전도해야 한다. 전도하는 교회는 부흥하고 부흥하는 교회는 전도의 열심이 있는 교회이다. 많은 사람들은

전도로 세상을 구원하려 하며, 세상을 바르게 만들 줄로 생각하나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큰 오해이다. 우리의 전도는 세상 중에 있는 영혼을 구원하려 함이다. 이것이 우리의 참된 사명이다. 오늘날 교회가 피폐하고, 혹은 부패되고, 혹은 잠자고, 혹은 속화하고, 혹은 이단에 속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전투력을 상실한 것이 주요 원인이다. 신앙의 좋은 싸움(딤후 6:12)이라 함은 곧 이 전도를 가리킴이다.

현재의 우리 교회는 너무도 조용하고 한가롭다. 지금은 영혼을 추수할 수확기이다. 성결한 사람들과, 분연히 일어나고 새 능력에 충만함을 얻어 활동할 때가 되었다. 은혜를 받았으면, 능력이 있으면, 새 생명을 가졌으면 증거하고 싸우라. 이것은 생명의 자연한 결과이다. **【중요】**

(본문 성경은 이명적복사의 설교집 제6권에 수록된 것을 본지 발행인 홍순권목사께서 현대적인 어법으로 정리한 것이다.)